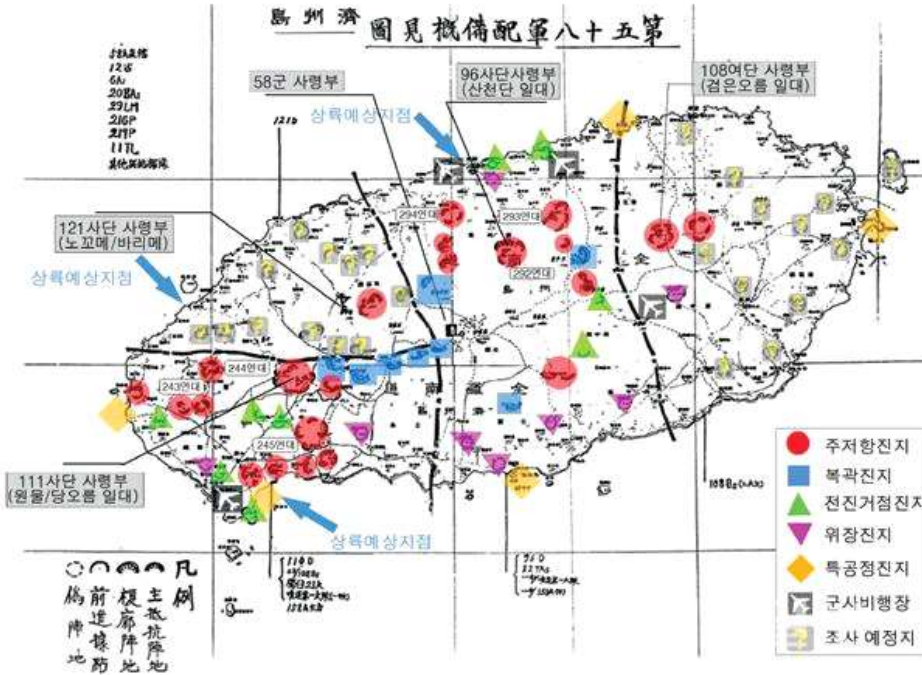


['고난의 역사현장' 일제전적지를 가다](100)

1백회 특집-(上) 60여 년 만에 드러난 진상
 제주주둔 日軍 7만5천명·군사시설 궤적 추적

입력 : 2008. 05.01. 00:00:00



▲취재팀이 탐사를 통해 확인한 일본군 주둔지 및 진지 위치를 '배비개견도'에 표시 재작성한 지도.

2005년 광복 60주년부터 시작 4년째 연재 문헌조사·인터뷰·탐사 등 통해 입체 조명 전문가들 "제주전역 요새화... 관심 절실"

○...태평양전쟁(1941년 12월~1945년 8월) 시기 제주주둔 7만5천여 명의 일본군과 군사시설 실태 등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고난의 역사현장 일제전적지를 가다' 탐사보도가 1백회째를 맞았다. 본보가 2005년 상반기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그해 10월6일자를 시작으로 보도를 내보낸 지 4년째다. 그 동안 탐사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과 함께 사회에 끼친 영향 및 앞으로의 계획 등을 2회에 걸쳐 특집으로 마련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달 취임 후 첫 한일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시점에 과거사의 뒷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에서 배우지 않고는 미래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열어갈 수는 없다. 과거 아픈 역사는 덮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일제가 이 땅에 저지른 역사의 상흔은 오늘날까지 깊은 생채기로 남아있다. 그로 인한 고통 역시 아물지 않고 있다.

불과 60여 년 전 제주도에는 7만5천 여 명에 이르는 일본군이 주둔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군사 시설을 구축했다. 그 과정에 4만 명 이상의 제주도민이 강제 동원돼 노역에 시달렸다. 그렇지만 오늘날까지 그 실체는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 학계나 언론에서 외면하는 사이 제주도를 20만 명 이상 죽어간 '제2의 오키나와'로 상정하고 중무장 요새로 만들었던 전쟁의 기억은 잊혀진 과거사가 돼버렸다.

그 후 60여년 만에 한라일보 탐사보도를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부분이 실체가 드러나면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본보는 일본군 7만5천명의 궤적을 추적했다. 도대체 그 많은 병력이 어디에 주둔하고 어떤 군사시설을 구축했는지 등이 탐사보도의 출발점이다. 제주도를 요새화 했던 일본군의 의도가 무엇인지, 태평양전쟁에서 제주도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등도 의문점이다. 당시 강제 동원됐던 제주도민의 한과 고통도 응어리로 남아있다.

이러한 물음은 특별취재팀의 탐사를 통해 하나 둘씩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일본군 사단사령부 및 예하병력 등의 주둔지가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군사시설 실태 등도 확인됐다.



▲제58군 배비개견도 원본

일본군 제58군사령부 주둔지로 알려진 한라산 어승생악에서는 길이가 약 3백여m에 이르는 대규모 지하호와 벙커형태로 구축된 갱도진지 등을 찾아냈다. 제58군사령부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111사단 1만2천 명이 주둔했던 제주서남부는 원물오름과 당오름이 사령부 및 예하병력 주둔지로 밝혀졌다. 111사단은 중국 만주에서 이동해온 정예병력이다. 그 예하부대인 243·244연대는 각각 가마오름과 새신오름 굽은오름 이계오름 일대에 주둔했다. 이 일대에 남아있는 갯도진지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3km 이상 된다. 산방산 일대는 245연대가 주둔해서 해안선을 따라 강력한 주저항진지를 구축했다.

제주 중앙부에는 96사단이 주둔했다. 96사단 사령부 및 292연대 주둔지는 어디일까. 제주시 산천단 일대가 해당된다. 산천단 셋굴치 일대에는 체계적으로 구축된 대형 갯도진지가 남아있다. 96사단 예하의 294연대는 제주시 오라동 민오름 남조봉 일대에 진을 쳤다. 이 일대에 대한 조사에서 취재팀은 50여 곳에 이르는 갯도진지를 찾아내고 증언을 통해 이를 뒷받침했다.

일본군 군사시설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즉 '복곽진지' '주저항진지' '전진거점진지' '위장진지'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해안가 주요 지점에는 자살특공정진지가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4곳의 군사비행장도 비밀리에 건설된다.

이러한 진지는 연합군의 상륙할 경우 최후의 1인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옥쇄(玉碎)작전에 따라 구축된 것이다.

일본군 주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군사지도 중의 하나가 바로 '제58군배비개견도 제주도'다. 실제 탐사결과 '배비개견도'에 표시된 주둔지와 진지유형은 거의 일치했다. 일본군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전쟁에 대비했는지를 보여준다. 특별취재팀이 확인한 5백여 곳의 군사시설 가운데 상당수는 입구가 함몰된 상태다. 또한 취재팀의 탐사 후에도 훼손·함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최후의 복곽진지로 구축됐던 어승생악의 지하갯도다. 취재팀의 4년 전 처음 보도한 어승생악 갯도는 호우로 인해 입구가 함몰돼 진입할 수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제주도 전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당국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높다.



▲일본군 제58군 사령부 주둔지인 어승생약 정상부에 구축된 토치카 내부. /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박찬식 박사(근현대사·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학술교수)는 "단편적으로만 알려져 왔던 일본군 실상과 군사시설 구축 실태가 집중 탐사보도를 통해 관심사로 부각되고 하나의 큰 틀 속에서 켈 수 있게 된 것은 성과이자 역사적 의의"라고 말했다. 또 "중요한 역사현장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의 무관심속에 방치돼 온 것이 현실"이라며 "더 이상 늦기 전에 역사적 성격 및 조사 보존 등을 위한 당국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강순원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연구원은 "제주도에서 진행됐던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가 예상보다 많이 진전됐고, 제주 서부지역 뿐 아니라 제주도 전역이 요새화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놀랍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역사현장이 무의미하게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관심 갖고 검토해야 한다"며 "역사적 차원이든 교훈적 차원이든 입체적 조사와 후대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탐사 어떻게 진행됐나]오름 등 90여 곳서 日 군사시설 5백여개 확인

탐사보도는 제1부 '알뜨르비행장에서 오키나와까지'(2005년 10월~2005년 12월 말), 제2부 '베일 벗는 일본군 실체'(2006년 2월~2007년3월)에 이어 현재 제3부 '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2007년 4월~현재)가 연재 중이다.

취재팀은 그동안 제주도과 남해안 지역 및 일본본토에 대한 교차조사를 실시하는 등 입체적으로 접근했다. 또한 일본 군사전문가들과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연구진이 공동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제주도내에 대한 조사는 일본군 군사지도인 '제58군배비개견도 제주도'와 '제주도병력기초배치요도' 등을 기초로 각종 문헌자료와 당시 강제징용자에 대한 증언채록 및 실제 주둔지에 대한 현장중심의 탐사활동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90여 곳의 오름 및 해안가 등지서 5백여 개에 이르는 일본군 군사시설이 탐사를 통해 확인됐다.

일본천황과 전쟁지휘부 및 방송국 등을 위한 나가노현 마쓰시로(松代)대본영과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의 고요엔(甲陽園)지하호, 오키나와의 군사시설 비교조사는 일본 현지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전남 여수 거문도에 대한 조사와 전남 해남 옥매산 광부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다른 지방 광부들이 제주도 군사시설 구축을 위해 대거 동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